



미 증시, CPI 여진, 차익실현 압력 등으로 혼조세

미국 증시 리뷰

13 일(수) 미국 증시는 2 월 CPI 여진 속 지정학 불안으로 인한 WTI 유가(+3.0%) 강세, 엔비디아(-1.1%), AMD(-4.0%) 등 AI 관련 반도체주 차익실현 물량 출회 등으로 혼조세 마감(다우 +0.1%, S&P500 -0.2%, 나스닥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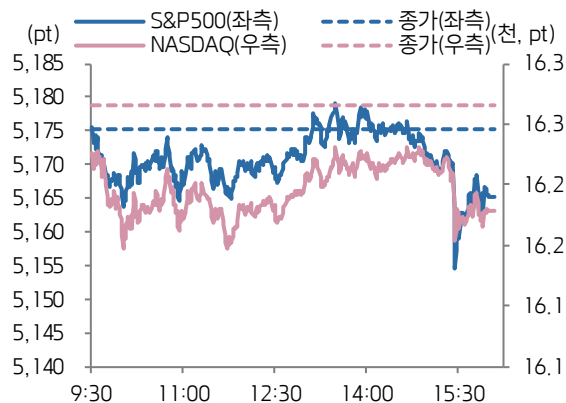
업종별로는 에너지(+1.5%), 소재(+0.9%), 유틸리티(+0.7%) 등이 강세, 기술(-1.1%), 부동산(-0.6%), 헬스케어(-0.4%) 등이 약세. 엔비디아(-1.1%), AMD(-4.0%) 등 AI 주들은 차주 GTC 기대감이 상존했음에도, 직전일 급등세에 대한 차익실현압력으로 동반 약세. 테슬라(-4.5%)는 웰스파고의 투자의견 하향, 미국과 유럽의 주요 자동차 업체들이 전기차 시장의 성장 둔화로 인해 하이브리드 생산 확대 등 전기차 전환에 대한 속도조절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으로 약세. 반면, 엑손모빌(+1.1%) 등 에너지주들은 미국의 주간 원유재고 감소,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정유소에 대한 드론 공격 감행 등으로 인한 유가 강세 영향으로 상승.

유로존의 1 월 산업생산은 -3.2%(MoM)으로 전월(+1.6%) 증가세에서 감소세로 전환했으며, 컨센(-1.8%)을 하회하는 쇼크를 기록. 전년동월비(YoY) 기준으로도 -6.7%를 기록하면 전월(+0.2%) 및 컨센(-2.9%)를 큰 폭으로 하회.

유럽중앙은행(ECB)는 대차대조표 축소 과정에서도 금융시장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한 신규 유동성 관리 방안을 발표. 은행들이 고정금리로 현금을 입찰하는 정기 자금 경매 시장을 다시 가동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9 월 18 일부터 1 주일짜리 단기재융자창구(MRO)에 적용되는 레피 금리를 ECB 의 예금금리보다 0.15%포인트 높게 설정할 예정이라고 설명. 또 은행이 대출을 다시 하기 시작했다고 판단될 시 채권 매입을 위한 새로운 장기 대출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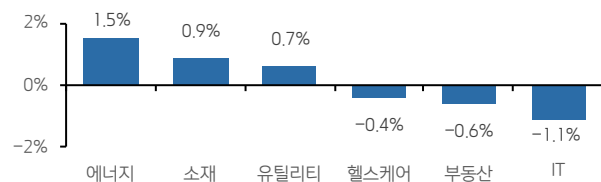
일본 도요타는 업체 내 노조들이 요구하는 임금 인상(최대 2.8 만엔)을 수용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1999 년 이후 약 25 년 만에 최대 인상폭. 블룸버그 등 외신에서는 도요타는 일본 대기업들의 임금 기준점을 역할을 하고 있기에, 이번 임금 인상 수용은 임금과 물가 상승의 선순환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 닛산 역시 최대 1.8 만엔 임금 인상을 수용하기로 결정. 우에다 BOJ 총재는 향후 발표되는 임금 인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향후 정책 방향을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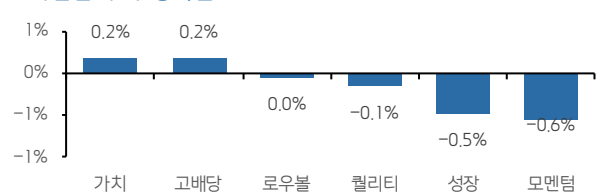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코스피	2,693.57	+0.44%	USD/KRW	1,314.30	+0.27%
코스피 200	363.04	+0.53%	달러 지수	102.78	-0.17%
코스닥	889.93	+0.02%	EUR/USD	1.10	+0.02%
코스닥 150	1,478.80	-0.33%	USD/CNH	7.19	+0%
S&P500	5,165.31	-0.19%	USD/JPY	147.67	-0.06%
NASDAQ	16,177.77	-0.54%	채권시장		
다우	39,043.32	+0.1%	국고채 3년	3.245	-2.5bp
VIX	13.75	-0.65%	국고채 10년	3.327	-0.6bp
러셀 2000	2,071.71	+0.3%	미국 국채 2년	4.635	+4.8bp
필라. 반도체	4,868.95	-2.47%	미국 국채 10년	4.190	+3.9bp
다우 운송	15,820.46	-0.39%	미국 국채 30년	4.340	+2.7bp
유럽, ETFs			원자재 시장		
Eurostoxx50	5,000.55	+0.35%	WTI	79.6	-0.15%
MSCI 전세계 지수	775.30	-0.05%	브렌트유	84.03	+2.58%
MSCI DM 지수	3,396.19	-0.03%	금	2178.7	-0.1%
MSCI EM 지수	1,046.51	-0.24%	은	24.96	+3.16%
MSCI 한국 ETF	67.09	-0.19%	구리	405.25	+3.25%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0.19% 하락, MSCI 신흥국 ETF 는 0.31% 하락. 유렉스 야간선물은 0.23%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311.8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3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2월 CPI 쇼크여파 및 소매판매, PPI 발표를 앞둔 경계심리 2. CHIPS 법에 따른 삼성전자 보조금 지원 방안을 이달 말 발표할 것이라는 보도 3. 외국인은 전력기기, 건설기계 등 기계 업종 순매수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CPI 결과는 양호하게 소화했지만 다음주 FOMC 및 점도표 발표를 앞두고 경계심리 유입되며 지수 상단은 제한되는 국면. 동시에 기업 실적 모멘텀 부재, AI 주 밸류에이션 부담 및 규제 리스크 부각되며 상승탄력은 약화.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CEO 가 금리 인하를 6 월 이후에 진행해야 한다고 언급하는 등 일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현지점에서 6 월 금리인하 전망은 유효. 전체적인 디스인플레이 방향성을 감안 시 6 월까지 3 번의 지표를 확인하며 근원 PCE 물가지수가 2%에 근접할 수 있다는 컨센서스 형성.

미 경기에 대해서는 연착륙 전망 유지. 전일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경기 침체와 비용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예상되지 않는 이유로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한 인플레이 둔화 전망을 제시. 또한 일부 소비자들이 저축액을 소진하면서 신용카드로 더 많은 돈을 쓰고 있는데, 이를 불안한 추세라기보다는 정상화라고 언급하며 소비 역시 견조함을 시사. CPI 에서 주거비 상승세 완화를 확인했기 때문에 금일 발표되는 소매판매 지표가 예상치에 부합할 경우 증시에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 2월 소매판매 컨센서스 MOM 0.8%(전월 -0.8%)로 연초 계절성 해소 확인 필요.

한편 엔비디아의 주가는 18~21 일 예정된 AI 개발자 콘퍼런스(GTC)를 앞두고 조정. 추가로 전일 EU 의 AI 규제법("허용할 수 없는 기술" 지정 및 위험 범주 분류) 통과 소식 역시 AI 관련주 투자심리 위축 요인. 다만 미 정부가 CHIPS 법에 따른 TSMC 와 삼성전자 보조금 지원 방안을 이달 말 발표할 것이라는 보도 등 반도체 관련 모멘텀은 유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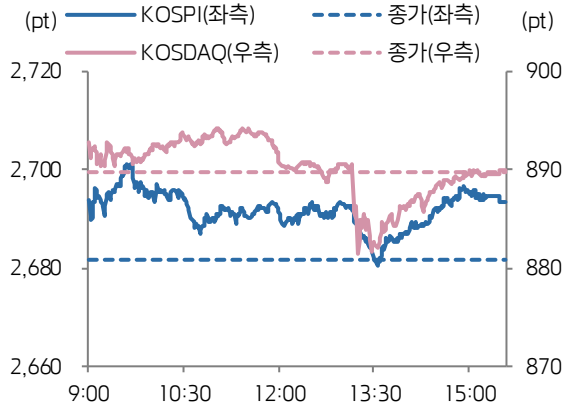
13일(수) 국내증시는 CPI 결과를 양호하게 소화한 가운데, 2차전지 차익실현에 상승폭은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저PBR주 강세 및 외국인 순매수에 힘입어 상승 마감 (KOSPI +0.44%, KOSDAQ +0.02%)

금일에는 미 소매판매, PPI 지표 대기 심리가 유입되며 지수 상단은 제한된 가운데, 반도체, 이차전지 관련주 투심 약화 및 개별주 순환매 장세 예상.

코스피는 22년 5월 이후 처음으로 2,700선 도달. 강세장에 진입한 미국, 일본 증시 대비 박스권에 머물러 있지만, 연초 이후로 지수 하단을 높여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 은행, 증권 업종에 대한 외국인 순매수 지속되며 저 PBR 주들이 하단을 지지해주고 있으며, 인터넷, 의료기기 등 고밸류 업종의 동반 강세는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유효하다는 것을 반증. 500 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각을 공시한 NH 투자증권의 신고가 경신에서 나타나듯 외국인의 관심은 대형주들의 자사주 매입 공시에 집중되어 호재로 작용하고 있으며 저 PBR 테마의 지속성 확인. 밸류업 정책 수혜가 향후 개선이 기대되는 기업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주주환원 여력 있는 고밸류 및 중소형주 선별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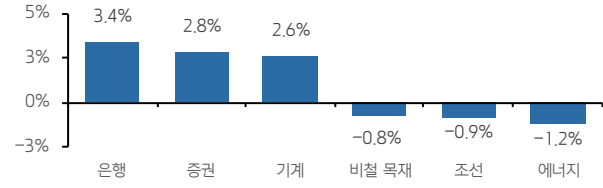
외국인은 전력기기, 건설기계 등 기계 업종 역시 순매수했다는 점에 주목. 단기적으로는 AI 투자 확대에 따른 전력 수요, 푸틴의 종전 협상 언급에 따른 재건 테마가 부각된 가운데 정책,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주목할 필요. 전일 트럼프, 바이든이 조지아주 경선에서 대의원 과반 차지하며 대선후보로 사실상 확정. 향후 쟁점은 물가 안정 및 에너지 안보로 초당파적 합의점은 전력인프라 및 원전. 2월 29일 SMR, MMR 등 차세대 원전의 개발 내용을 포함한 미국 원자력 발전법(Atomic Energy Advancement Act)이 하원에서 통과된 바 있으며, 12일 클라우드 호실적으로 인한 오라클 주가 12% 급등과 함께 SMR 개발 업체 뉴스케일파워 주가 역시 14.4% 급등.

KOSPI & KOSDAQ 일종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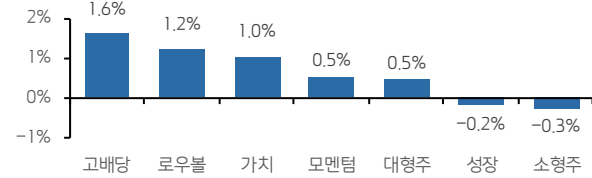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